

손 안에서 다 이뤄지는 '모바일 뱅킹'

'광주 Wa 뱅크'·'신한 슈퍼셀' 등 앱 고도화 '슈퍼앱' 경쟁 가속화 은행·증권 등 금융서비스 뿐 아니라 비금융 생활서비스까지 확대

새해 금융권은 앱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 강화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하나의 '슈퍼앱'으로 소비자들은 은행·증권·보험·신용카드 서비스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부터 일상 생활과 밀접한 비금융 서비스의 영역까지 앱의 용도를 확대하면서 소비자 유치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계열사 간 장벽 해소, 비금융 서비스 제공 확대 등 앱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금융권이 앱 고도화를 통해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해석된다.

먼저 광주은행은 지난달 창립 55주년을 맞아 출시한 '광주와(Wa) 뱅크'를 통해 기존의 딱딱한 금융 앱에서 벗어나 '비금융 생활서비스'를 강조했다.

광주은행은 'Wa 뱅크' 앱을 통해 금융서비스는 물론 비금융 생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여행사, 배달업체, 보험사 등과 협력해, 광주·전남지역 내 맛집과 여행명소 소개, 지역특산물 소개, 배달 음식 주문, 해외여행 예약, 생활보험 가입까지 다

양한 분야의 정보 및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워라밸 및 건강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인을 위해 만보기 기능 및 건강 관련 정보 등 '건강 콘텐츠'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여러 계열사가 있는 주요 금융그룹들은 하나의 '슈퍼앱' 안에서 여러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해 그룹 계열사 간 장벽을 허물고, 앱 하나로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비금융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앱 로그인 한 번으로 은행·증권·카드·보험·캐피탈·저축은행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각 금융그룹들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서비스를 모두 담은 '슈퍼앱'을 통해 각기 다른 전략을 세우고 이벤트를 여는 등 고객 유치에 열을 쏟는 분위기다.

지난달 18일 신한금융그룹이 선보인 '신한 슈퍼셀'은 불과 개시 2주만에 207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신한 슈퍼 셀'은 기존 신한은행 앱인 '신한 셀'과는 별개로 신한금융그룹에서 은행·카드·증권·보

험·저축은행 등 5개 계열사 앱의 핵심 기능을 한 데 모은 슈퍼앱이다.

다른 금융 경쟁사들도 각 계열사의 기능을 합한 '슈퍼앱' 만들기 계획을 밝혔다. 다만, 신한금융그룹과 달리 기존 은행 앱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KB금융그룹은 기존 은행 앱 'KB 스타뱅크'를 통해 금융 서비스 뿐만 아니라 부동산·자동차·헬스케어·통신 등 비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KB 스타뱅크'를 슈퍼앱으로 규정하고, 비금융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기능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이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 내 주요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 '하나원큐'가 지난 2000년 8월 국내 최초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계열사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하나원큐'를 진정한 의미의 슈퍼앱으로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도 오는 11월 말까지 기존 은행 앱이었던 '우리WON뱅크'에 비금융서비스 확장 및 각 계열사를 모두 있는 기능을 탑재한 슈퍼앱을 새로 출시할 방침이다.

NH농협금융그룹은 오는 6월부터 'NH올원뱅크' 앱을 통해 그룹 계열사 전 상품을 판매하며, 내년 1월부터는 앱 기능 확대를 통해 모든 업무영역 업무점 방문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K-푸드' 세계 수출 기업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024년 글로벌 'K-푸드 페어' 사업을 8개국 8회로 확정하고, 오는 14일까지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할 290여 농수산물 수출업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2023년 하노이에서 개최된 'K-푸드 페어' B2B 수출상담회 전경. (aT 제공)

전남 7개사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82만불 성과

한국무역협회·전남도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동원)는 9일 전남도와 함께 '2023년 전라남도 해외박람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시행해 82만불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에너지, 기계류, 화장품 등 수출 잠재력이 높은 전남 공산품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해 7개 회사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했다.

태양열 집열기, 정밀기계부품, 제철설비 등 도내 유망 공업기업들이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단순 수출 상담 외에도 신규 공급망 확보, 라이선스 계약 및 정비·수리 파트너십 논의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성과를 거뒀다.

무역협회는 올해 더 많은 참가사 지원을 위해 예산을 전년 대비 20% 상향된 6000만원으로 편성,

상·하반기 각각 3개사 내외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부스임차비, 장치비, 운송료 비용의 70% 이내를 실비 지원(1000만원 한도)하며, 예산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 중 2024년 해외박람회 참가 기업으로 선정된 공산품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농(축)수산물 기업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gj.kita.net) 또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jex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은 "본 사업은 단체인 참가와 달리 참가업체가 업체에게 유망한 해외전시회를 직접 선택해서 참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며 "올해도 유망 공산품 기업들의 해외박람회 참가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ISA, 중국 북경시에 대표처 설립 승인 받아

개인·기업 정보 보호 강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북경시에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9일 밝혔다.

KISA는 지난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센터)를 설립하고,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나라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하고 삭제해왔다.

실제 최근 5년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는 2만 2390건의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하고 이 중 2만 1542건을 삭제했다.

하지만 그동안 센터는 비공식 사무소 형태로 운

영됐고, 중국 유관기관과 협력이 어려워 공식 대표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KISA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법 게시물 탐지·삭제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중국 내 대표처 설립을 추진했고, 지난해 12월 말 최종 설립을 승인 받았다.

KISA는 오는 3월께 중국 북경시에 대표처를 개소하고 공식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김주영 KISA 개인정보본부장은 "KISA는 이번 개소될 현지 거점인 대표처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준법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무결점' 캐스퍼 전기차 세계시장 질주 시동

7월부터 전기차 본격 생산 유럽 등 세계 50개국 수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오는 7월 예정된 캐스퍼 전기차 생산을 앞두고 최상의 품질확보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9일 GGM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기차 생산시설 구축을 마무리한 GGM은 오는 7월부터 전기를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GGM은 기존 내연기관과 함께 소형차 수요가 높은 유럽과 일본 등 세계 50여 개 나라를 캐스퍼 주력 수출국으로 보고 있다.

GGM의 올 생산 목표는 지난해보다 8% 늘어난 4만8500대로, 4년 연속 양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GGM은 상반기 2만4000대, 하반기 2만4500대를 생산할 계획인데, 이중 내연기관 캐스퍼가 3만 1500대, 전기차는 1만7000대다.

하반기의 경우 양산 물량 2만4500대 중 1만 7000대(70%)가 전기차로 GGM의 주력 엔진도 글로벌 차량 트렌드에 맞춰 전기차로 옮겨갈 계획이다.

GGM은 전기차의 내수, 수출이 늘어날 경우, 현재 1교대 생산 체계를 2교대로 확대하고 필요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결점 품질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윤몽현(가운데) GGM 대표이사가 생산동을 찾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GGM 제공)

로, GGM은 전기차 양산을 앞두고 전사(全社)적인 품질 확보에 나섰다.

특히 지난해 12월 취임한 윤몽현 제2대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 최고품질의 캐스퍼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지속적인 품질 개선 및 철저한 불량 유출 방지 활동 강화 ▲부품 및 작업 품질 확보 ▲대대적인 품질 혁신 운동(QQ 99) 전개 등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완벽한 무결점 품질 확보 시스템을 구축 등을 통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한 수출, 생산,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업그레이드 하고 예방 보전 시스템과 노후 설비 수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몽현 대표이사는 "무결점 품질확보와 함께 완전한 상생협력의 기업문화와 정작하고 경영시스템을 혁신해 경이로운 경쟁력을 갖춘 모범적인 회사를 만들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제9 시집
조선의 시집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조선의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감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감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감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감사